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송창용* · 성양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 통계센터 소장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 통계센터 연구원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요 약》

-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각각 79.5%, 77.2%로(2006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는 약 8%p 낮은 수준임.
- 지표상으로는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이 감소하는 듯 보이나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청년 취업준비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반면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 2000년 이후 한국경제구조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구직을 원하는 청년, 특히 대졸 고학력 청년층에게 적합한 국내 일자리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임.
- 따라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청년해외취업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이에 본 고에서는
 -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력진출 지원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 해외인력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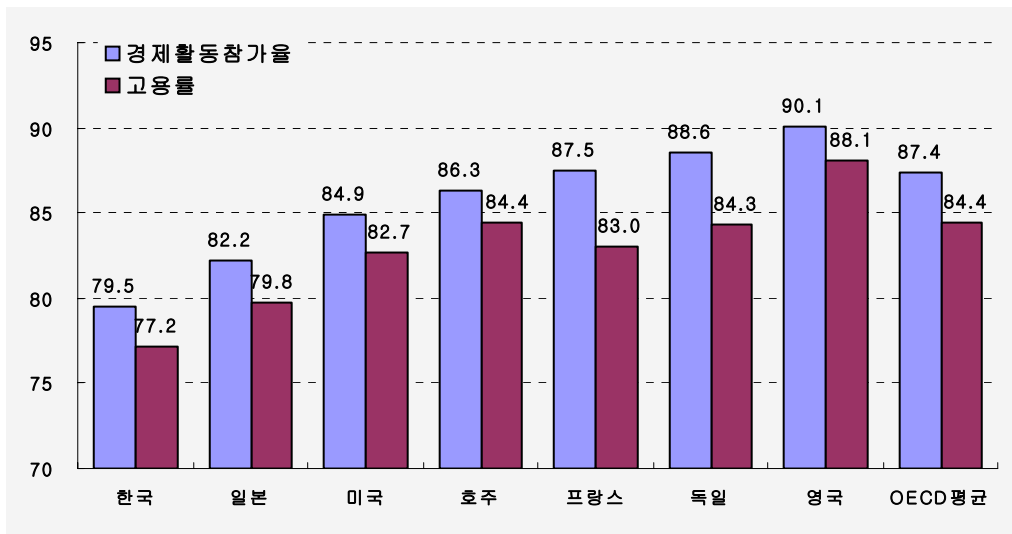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I. 서론

▣ 고학력자의 낮은 고용률과 청년층의 심각한 노동력 저활용

- 우리나라의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은 2006년 현재 각각 79.5%, 77.2%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월등히 낮은 편으로, 영국에 비해서는 약 10%p 이상,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는 약 8%p 낮은 수준임.

(단위: %)



주: 2006년 기준임.

자료: OECD(2008).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그림 1]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의 국제 비교

- 2008년 현재 청년층(15세~29세)의 고용률은 41.6%로 2004년 비해 3.5%p 감소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44.8%로서 2004년에 비해 4.4%p 감소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청년층 취업자 및 노동력 저활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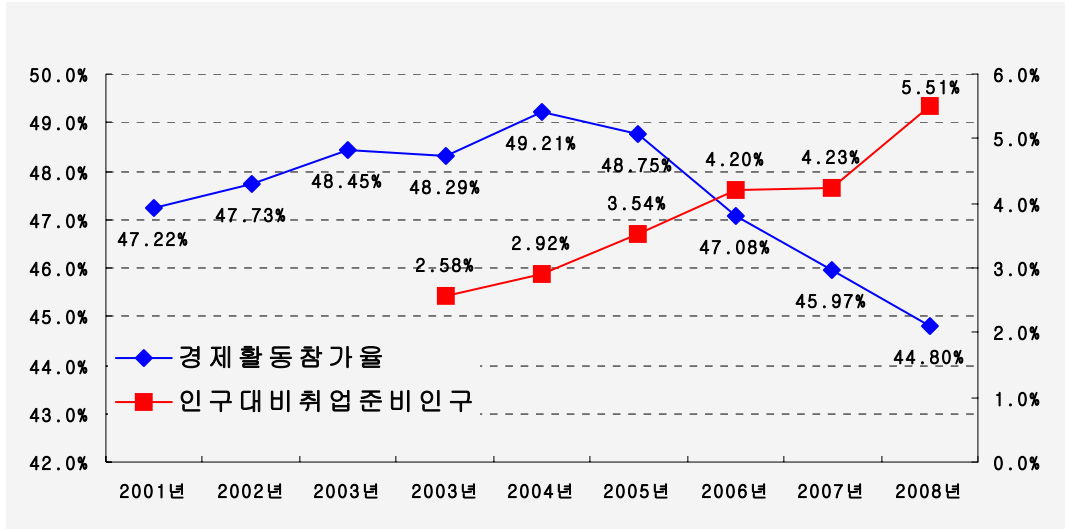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경제활동참가율	47.2	47.7	48.4	48.3	49.2	48.8	47.1	46.0	44.8
고용률	43.4	44.0	45.1	44.4	45.1	44.9	43.4	42.6	41.6
실업률	8.1	7.9	7.0	8.0	8.3	8.0	7.9	7.2	7.2
취업자	4,879	4,815	4,799	4,606	4,578	4,450	4,270	4,202	4,084
실업자	430	413	361	401	412	387	364	328	315
취업준비인구	-	-	-	268	297	351	413	417	455

주: 취업준비 비경제활동인구 조사는 2003년부터 실시되어 왔음.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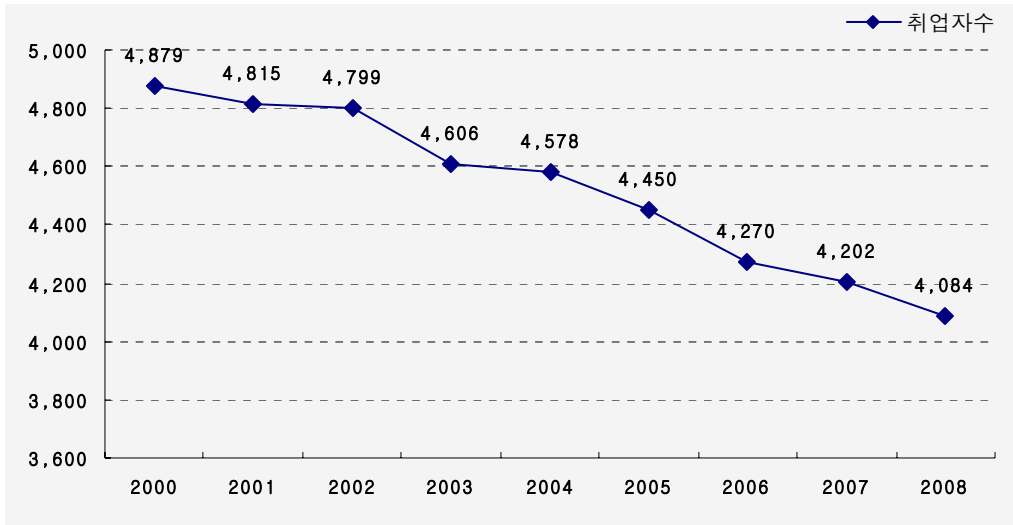
- 지표상으로는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 및 실업자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업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취업준비인구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음.
 - 2008년 청년층의 취업준비인구는 약 46만 명으로 2003년 대비 약 1.7배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과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특히 청년층의 취업준비인구의 증가는 고용사정의 악화로 인해 경제활동 이탈 인구의 상당부분이 취업준비인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청년 취업준비인구가 청년 실업자 32만 명에 포함되지 않음을 감안하면 2008년 실제 청년층의 구직인구는 80만 명에 육박함.



자료: 통계청(각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2]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및 취업준비인구 비율의 변화

- 2008년 청년층 취업준비 인구 중 대졸 이상 고학력 취업준비인구는 약 31만 명으로 전체 청년층 취업준비 인구의 46%를 차지
 - 대학 재학 중인 취업준비자가 최종학력이 고졸로 표기된다는 측면을 감안하면 상당수의 취업준비인구가 고학력 취업준비자임을 알 수 있음.
- ▣ 청년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당분간 감소추세가 반전되기 어려워 보임.
- 2000년 이후 청년층의 취업자 수는 계속 감소 추세
 - 2000년 4,879천 명에서 2008년 4,084천 명으로 취업자 수가 약 8십만 명 감소



[그림 3] 청년층 취업자 수(2000~2008)

- 2000년 이후 한국경제구조에서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기회는 더 악화 될 것으로 전망됨.
 - 구직을 원하는 고학력 청년층에게 적합한 국내 일자리 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임.
 - ※ 고용탄성치(경제성장률대비 취업자증가율의 비율): 2001년 0.50 → 2005년 0.34 → 2008년 0.28
 - ※ 전산업 고용계수(GDP 10억 원당 취업자 수): 2000년 7.83 → 2005년 6.11 → 2006년 5.95
- ▣ 따라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청년층의 해외인력진출은 다양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해외인력진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
 - 청년층 고학력자의 실업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며 국내에 한정해서 해결책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개방화,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의 해외인력진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청년층의 인력교류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
 - 한류, IT 강국 국가 이미지 등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확산하는데 기여
 - 새로운 기술 획득, 해외 직장 경험 등으로 글로벌화에 대응
 -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 정부차원에서도 해외인력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문제점 개선 및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요구됨.
 - 현재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외취업지원 사업 실시
 - 2008년 “글로벌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관련 정책 추진 중

- 이에 본 고에서는
 -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의 현황을 살펴보고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외인력진출 지원 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한 후
 - 해외인력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Ⅱ.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진출

1.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진출 현황

▣ 해외인력진출 확장기: 1960년대 이후 1980년 대 중반까지

- 우리나라의 해외취업은 1960년 초반부터 시작, 경제 활성화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정부 주도하의 해외인력진출이 이루어짐.
 - 1963년 서독에 247명의 광부를 파견시킨 것을 계기로 이어 간호사를 진출시켰고, 일본 및 동남아 등지로의 기술연구, 개별취업도 확대됨.

- 1970년 이후 중동의 석유산업 발전과 건설 붐에 따라 건설인력의 진출이 점차 확대되어 1983년 225,159명으로 정점에 달함.
- 1983년에 정점에 달했던 해외 취업자 수는 점차 감소
 - 1980년 말에는 선원직종 증가세, 운전정비, 단순노무, 의료직종 등 꾸준히 해외 취업의 명맥을 유지함.
 - ※ 1980년 대 이후 현지의 외국기업에 고용되는 형태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장 진출로 취업형태의 양상이 변화됨.

▣ 해외인력진출 쇠퇴기: 1980년대 중반 이후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중동지역의 건설경기 쇠퇴, 자국근로자 보호 정책,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등에 따른 해외취업의 매력 감소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해외인력진출이 점차 감소하고 관련 조직 및 지원제도가 축소·폐지됨.
 - 1987년 민간해외직업소개업의 신규허가 중단
 - 1991년 해외개발공사가 폐쇄되어 한국국제협력단의 인력협력사업으로 축소
 - 1994년 한국국제협력단 해외취업사업 종결(김용성, 2006)

〈표 2〉 직종별 해외취업 실적

구분	취업자 수	건축토건	운전정비	의 료	단순노무	선 원	광 부	기 타
1975	35,591	7,690	4,356	7,712	53	11,616	2,272	1,695
1980	166,051	71,482	17,832	4,818	31,827	21,284	335	18,808
1985	163,313	43,240	15,375	3,449	10,771	36,730	-	53,748
1990	57,245	4,644	1,353	1,686	1,156	33,230	-	15,176
1994	24,989	1,797	1,027	131	143	17,092	-	4,799

출처: 김용성(2006). 해외지원사업 심층평가. 재정리.

〈표 3〉 지역별 해외취업 실적

구분	계	중 동	유 럽	아시아(월남)	미 주	기 타	선 원
1975	20,986	6,466	910	2,867(1)	358	-	10,323
1980	146,436	120,535	3	4,095	154	-	21,649
1985	120,245	72,907	320	5,590	1,418	795	39,215
1990	55,774	7,964	-	4,840	220	176	42,574
1994	22,605	3,195	226	4,714	58	162	14,250

출처: 김용성(2006). 해외지원사업 심층평가. 재정리.

▣ 해외인력진출 재도약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난의 해결책으로 해외취업의 중요성 다시 부각
 - 정부는 “국외취업활성화방안”(1998. 3.) 마련
 -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에 해외취업센터 설치(1998. 7.), 해외취업업무 재개
 - 민간에서는 국외직업소개업체가 해외취업 알선 기능 담당, 공공에서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과 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협력하는 체제 구축
 - 1999년 공공해외취업 담당기관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2001년부터 전담

- 전 세계적인 IT 붐에 힘입어 1998년 전산인력 354명이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취업사업이 재개된 90년대 후반에는 건설, 의료, 기술/제조, 항공승무원, 사무·무역 등의 직종에서 해외 취업자 배출
 - 90% 이상이 IT와 건설에 집중, 지역별로는 미주지역과 중동지역
 - 최근에는 간호사,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음.

- 최근 해외인력진출의 양상
 - 2000~2005년의 해외취업자 수는 연평균 약 2만 명이며, 주요 취업국은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순으로 나타남.
 - 해외취업의 분야와 지역이 분산되고, 해외취업 진출 형태 역시 해외취업연수, 인턴쉽 등으로 다양화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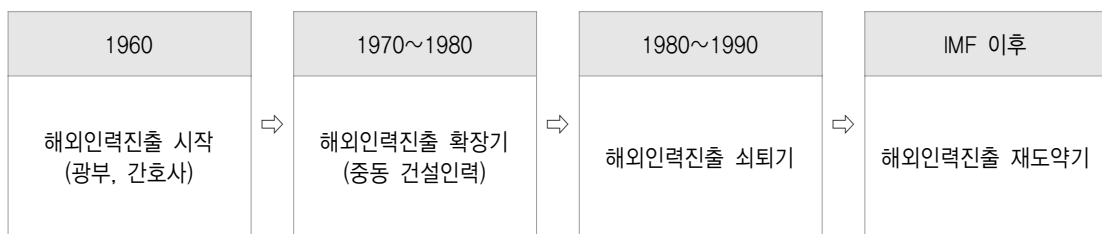
- 고학력, 전문직 종사자 집단의 진출 및 개별 해외취업 형태가 증가
- 다시 정부차원의 노력이 확대되어 현재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외취업지원 사업 실시
- 2008년 “글로벌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정책 추진 중

〈표 4〉 해외취업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 계	25,105	23,100	20,399	19,642	19,052	20,388
아시아	16,519	15,655	14,296	13,365	13,367	14,436
북아메리카	2,673	2,797	2,260	2,314	2,149	2,191
남아메리카	1,202	1,044	741	588	460	419
유럽	1,728	1,595	1,389	1,403	1,289	1,512
오세아니아	717	600	490	646	772	787
아프리카	1,335	1,201	1,094	1,219	954	982
기타	931	208	129	107	61	61

자료: 법무부 산하의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각년도). 「출입국 통계연보」.



[그림 4] 우리나라의 해외인력진출 변화

2.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의 특징 및 변화

▣ 지역 편중

- 개척기인 1960~65년에는 독일, 1965~69년에는 베트남, 1976~89년에는 중동지역 등 시기별로 특정 지역에 편중하는 경향을 보였음.
 - 1980년대에는 해외취업자 가운데 82.3%가 중동지역에 진출
 - ▶▶ 현재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으로 해외취업 지역의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직종 편중

- 진출 직종은 건축과 토건, 선원, 단순노무, 운전정비, 의료 등이 주를 이루었음.
 - 1980년대 해외취업 직종을 보면 건설 및 건설관련 직종이 총 해외진출의 61.5%
 - 1990년대 말 간호사, IT 인력 등이 해외로 진출하였으나 여전히 일부 직종에 편중
 - ▶▶ 최근에는 전문직을 위주로 한 특정분야 인력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진출형태

-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대량의 집단취업 형태
 - ▶▶ 최근에는 개별 취업의 형태로 변화

▣ 저숙련 취업 경향

- 구직신청은 전문직종이 큰데 반해 실제 취업 실적은 일부 저숙련 직종에 국한
 - ▶▶ 현재까지도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사실상 저숙련 직종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김용성, 2006).

Ⅲ.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 지원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1.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

(1) 해외취업지원사업의 현황

- IMF 이후 실업난 극복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다시 해외취업을 적극 지원
 - 정부는 “국외취업활성화방안”(1998. 3.)을 발표하고 해외취업 지원 사업 재개
 - 1999년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전담기관으로 선정하여 해외취업지원 사업을 실시
 - 이 밖에도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

〈표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취업 지원 사업 현황

주관부처 (시행기관)	사업명	사업개요	인원	연 예산
노동부 (한국산업 인력공단)	해외취업 지원 사업	청년들에게 해외실무경험에 대한 기회를 부여해서 청년인력자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외취업 알선과 해외취업 연수 사업의 두 가지 형태로 수행됨.	연수: 1750명 (2006)	104억 원
여성 가족부	국제전문 여성인력 양성사업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세대 여성을 선발하여 국제회의 및 국제기구 인턴십 진출 지원을 함으로써 한국여성이 국제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여건 및 기회를 제공함.	15명 (2006)	1억 9,400만 원
외교 통상부	JPO사업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도로써, 회원국 정부가 관련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국제기구 사무국에 수습직원을 파견하여 국제 기구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습득, 정규직으로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임.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시행중.	총 파견인 43명 중 총 28명이 현직에 있음(2007)	12억
교육인적 자원부	전문대생 해외인턴십 사업	전문대학생에게 국제감각과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외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며, 양질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임.	282명 (2006)	20억 원
부산광역시	해외인턴 사원 취업지원 사업	부산지역 청년층 고학력자 실업 해소를 목적으로 졸업을 앞둔 재학생 혹은 최근 졸업생이 해외 현지 기업체 인턴사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지원함.	478명 (2006)	16억 8천만 원

<표 계속>

주관부처 (시행기관)	사업명	사업개요	인원	연 예산
중소기업청	해외시장 개척 요원	수출 전문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함께 우수 청년 인력을 중소기업 전담 수출 인력으로 양성·공급 및 취업·창업 지원함.	895명 (2005)	87억 원
기타	봉사성격	KOICA 해외봉사단, 전문가 파견사업 정보통신부 해외 인터넷 청년봉사단		
	종료사업	산업자원부 청년무역인력양성사업 서울시 해외취업사업 부산시 맞춤형 해외취업 지원사업		

출처: 김남희 외(2007). p. 36.

- 2008년 새정부는 “글로벌리더 1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 및 청년들의 해외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 수립(2008. 4. 29.)하여 추진 중에 있음.
-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① 해외 전문가를 양성하고 ② 청년들의 해외취업과 ③ 청년해외봉사단을 확대한다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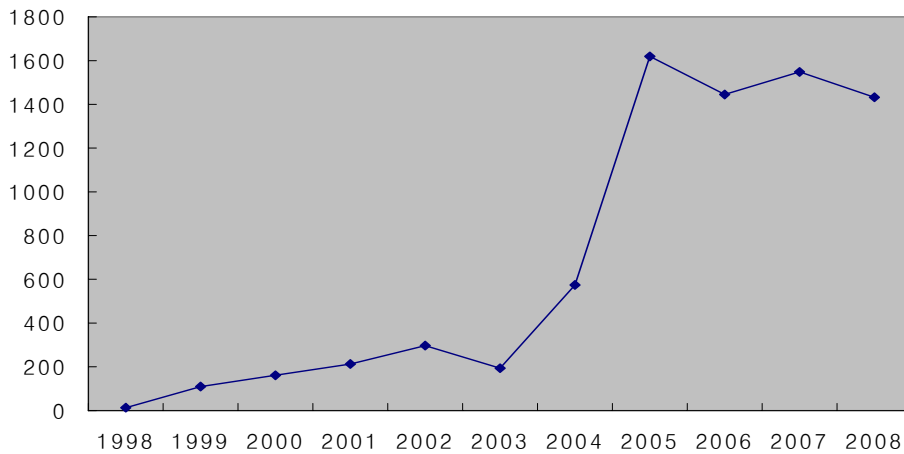
〈표 6〉 글로벌 청년 리더 10만 명 양성 세부 추진과제 및 계획

추진과제	추진계획
해외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인턴사업을 확대 또는 신설 · 해외 인턴십 비용에 대해서도 매칭펀드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 참여 적극 유도 · 국제기구, 재외공관, 비영리단체,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등은 물론 국내기업 해외지사, 재외공관 등을 인턴 수요처 및 발굴처로 활용 → 임기 내 3만 명을 목표로 추진
청년 해외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해외취업지원센터를 ‘글로벌 리더 양성본부’로 개편, 해외 취업 지원을 총괄해 함으로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 · 국제기구, 국내외 민간 알선업체, 대학 등과의 업무연계 및 지원 확대를 통해 해외 취업 확대를 추진 → 해외 취업 목표는 5만 명
청년해외봉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청년해외봉사단 파견 규모를 연차적으로 확대, 청년층에게 국제적 봉사 기회 제공 · 봉사단의 수요 발굴, 공공 및 민간 부문과의 연계 강화, 파견 내용 및 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추진 → 2만 명까지 확대

(2) 정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성과⁴⁾

▣ 해외취업자 현황

- 2004년 청년실업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의 공공부문 해외취업 지원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해외취업자 수가 급속히 증가
 - 취업자 수는 1998년 13명에서 2008년에는 1,434명으로 증가
 - 1998~2008년 총 해외취업자 수는 7,603명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각년도). 「해외취업통계」.

[그림 5] 해외 취업자 수(1998~2008)

- 그러나 2008년 기준 구직등록인원 대비 취업 비율은 5.8%에 그침.
 - 구인인원대비 취업자 비율은 45.5%

4) 본 통계자료는 산업인력공단이 전담하고 있는 정부사업을 통한 해외취업인원을 집계한 것으로 전체 해외취업자 수와는 차이가 있음.

〈표 7〉 해외 구인 구직 및 취업 현황('09.3.25 현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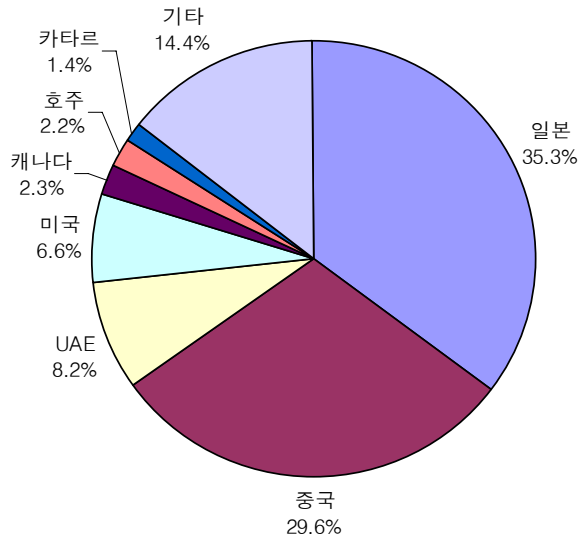
구 분	구직등록	구인인원	알 선	취 업			
				계	직접알선	연수	인턴
계	183,723	24,310	45,925	7,783	1,791	5,530	462
1998	8,916	1,138	1,625	13	13	-	-
1999	13,401	2,400	2,270	109	109	-	-
2000	6,717	2,249	2,788	160	79	81	-
2001	5,520	1,453	1,782	213	63	150	-
2002	7,299	1,126	1,622	295	47	248	-
2003	14,481	1,609	3,255	193	96	97	-
2004	34,005	2,663	5,095	571	162	409	-
2005	17,862	2,763	5,283	1,621	249	1,021	351
2006	24,429	1,529	5,967	1,446	328	1,060	58
2007	19,892	3,057	6,029	1,548	300	1,195	53
2008	24,761	3,152	8,154	1,434	313	1,121	-
2009. 3.	6,440	1,171	2,055	180	32	148	-

주: 연수·인턴 취업인원은 연수인턴 년도 구분 없이 당해 연도 취업인원임.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각년도), 「해외취업통계」.

▣ 국가별 취업 현황

- 1998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총계기준 국가별 취업 현황을 보면 일본이 35.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중국 29.6%, UAE 8.2%, 미국 6.6%, 캐나다 2.3%, 호주 2.2%, 카타르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14.4%를 차지



[그림 6] 국가별 취업자 비중(1998~2009. 3.)

<표 8> 국가별 취업자 현황(1998~2009. 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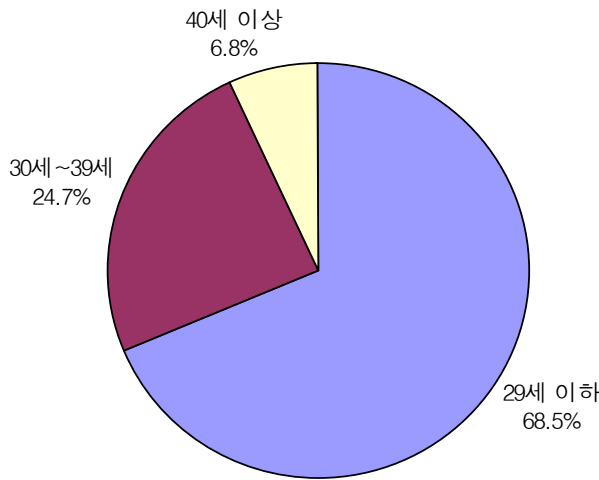
구분	계	중국	일본	미국	UAE	호주	카타르	캐나다	기타
계	7,783	2,301	2,751	513	637	170	107	181	1,123
1998	13			1					12
1999	109	1	2						106
2000	160	4		2	1				153
2001	213	24	14	7	40	2			126
2002	295	8	224	7					56
2003	193	6	60	59	4	2		8	54
2004	571	151	186	60	58	-		2	114
2005	1,621	537	561	231	89	79		4	120
2006	1,446	416	599	91	202	28	27	2	81
2007	1,548	610	604	22	75	22	58	41	116
2008	1,434	491	468	33	166	18	19	107	132
2009. 3.	180	53	33	0	2	19	3	17	53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각년도). 「해외취업통계」.

▣ 연령 및 성별 해외취업 비중

● 2003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취업자 총계를 기준으로

- 연령별로는 29세 이하가 6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30~39세가 24.7%, 40세 이상이 6.8%로 나타남.
- 성별로는 여자가 50.8%, 남자가 49.2%를 차지



[그림 7] 연령별 해외취업자 비중(2003~2009. 3.)

<표 9> 연령 및 성별 해외 취업자 현황(2003~2009. 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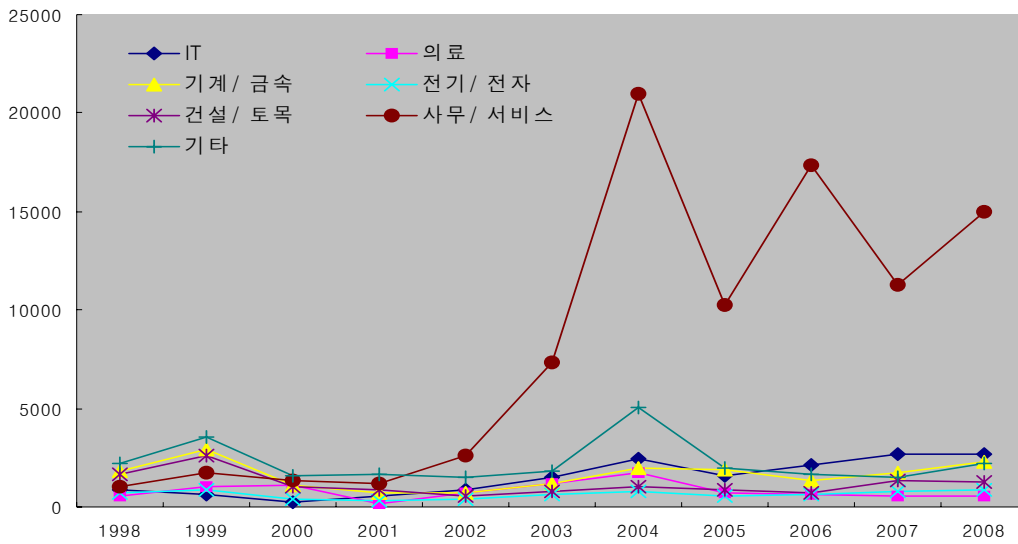
구분	계	연령별				성별	
		29세 이하	30세~34세	35세~39세	40세 이상	남	여
계	6,993	4,793	1,405	319	476	3,438	3,555
2003	193	94	50	18	31	80	113
2004	571	436	64	29	42	220	351
2005	1,621	1,068	346	75	132	756	865
2006	1,446	1,060	246	56	84	722	724
2007	1,548	1,059	334	70	85	824	724
2008	1,434	943	331	64	96	743	691
2009. 3.	180	133	34	7	6	93	87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각년도). 「해외취업통계」.

▣ 직종별 해외 구직등록 현황

● 사무/서비스업 분야의 구직자 비중이 2002년 이후 급속히 증가

- 2008년 기준 사무/서비스 분야의 구직자가 전체 구직자의 60.4%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IT(10.7%), 기계/금속(9.2%), 기타(9.0%), 건설/토목(5.0%), 전기/전자(3.5%), 의료(2.1%) 순으로 나타남.



[그림 8] 직종별 해외 구직등록 현황(1998~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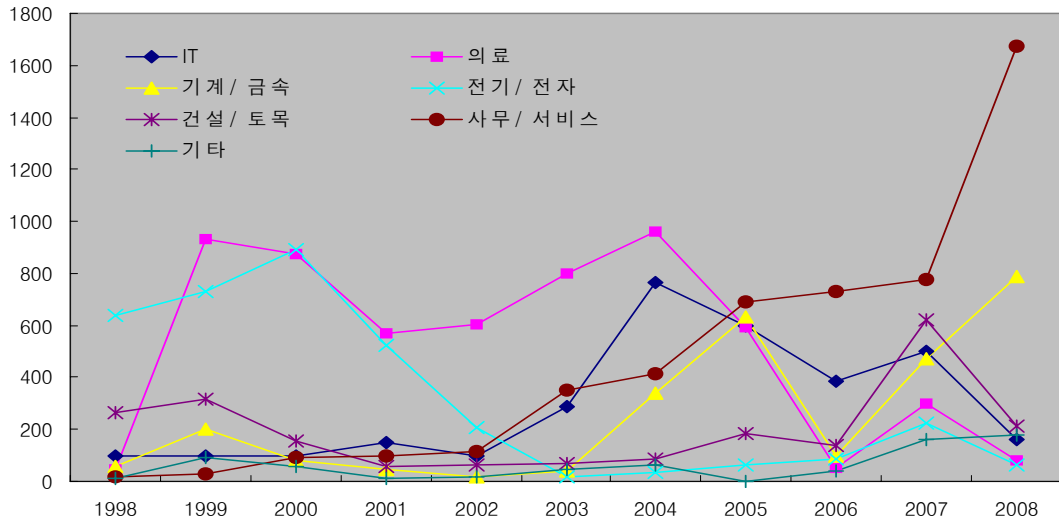
〈표 10〉 직종별 해외 구직등록 현황(1998~2008) (단위: 명)

구분	계	IT	의료	기계/ 금속	전기/ 전자	건설/ 토목	사무/ 서비스	기타
계	177,283	16,227	8,801	17,622	6,946	12,778	90,100	24,809
1998	8,916	904	552	1,806	721	1,685	1,029	2,219
1999	13,401	669	1,045	2,897	894	2,630	1,724	3,542
2000	6,717	223	1,077	1,124	355	1,050	1,304	1,584
2001	5,520	588	189	741	313	840	1,181	1,668
2002	7,299	873	673	674	398	571	2,577	1,533
2003	14,481	1,479	1,187	1,150	651	792	7,371	1,851
2004	34,005	2,436	1,710	1,994	811	1,061	20,982	5,011
2005	17,862	1,616	708	1,893	547	848	10,274	1,976
2006	24,429	2,126	603	1,345	601	684	17,379	1,691
2007	19,892	2,659	535	1,718	782	1,377	11,311	1,510
2008	24,761	2,654	522	2,280	873	1,240	14,968	2,224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각년도). 「해외취업통계」.

▣ 직종별 해외 구인인원 발굴 현황

- 사무/서비스업의 인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08년 기준 사무/서비스 분야의 구인인원은 전체 구인인원의 53.0%를 차지
 - 이어 기계/금속(24.9%), 건설/토목(6.7%), 기타(5.6%), IT(5.2%), 의료(2.5%), 전기/전자(2.0%), 순으로 나타남.



[그림 9] 직종별 해외 구인인원 발굴 현황(1998~2008)

<표 11> 직종별 해외 구인인원 발굴 현황(1998~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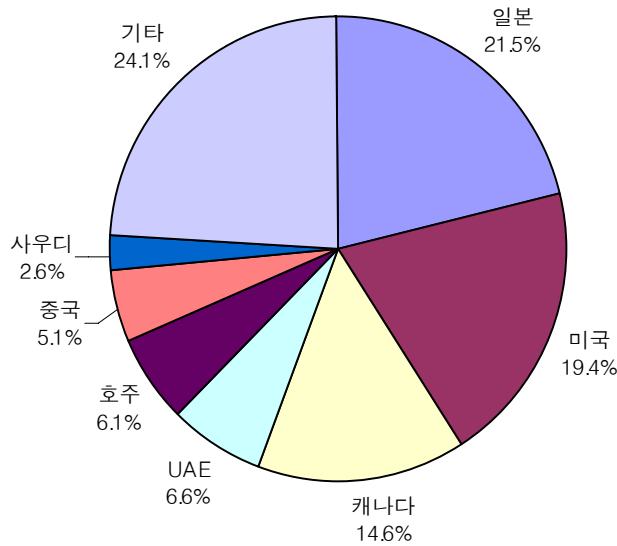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계	IT	의료	기계/금속	전기/전자	건설/토목	사무/서비스	기타
계	23,139	3,249	5,803	2,779	3,480	2,158	4,982	688
1998	1,138	100	45	57	641	267	17	11
1999	2,400	100	931	202	731	314	30	92
2000	2,249	100	872	81	893	153	93	57
2001	1,453	150	568	44	523	58	96	14
2002	1,126	100	603	20	205	62	116	20
2003	1,609	285	801	42	17	67	349	48
2004	2,663	764	960	341	32	84	416	66
2005	2,763	597	594	634	64	185	688	1
2006	1,529	388	50	98	85	136	730	42
2007	3,057	502	299	474	226	620	776	160
2008	3,152	163	80	786	63	212	1,671	177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각년도). 「해외취업통계」.

▣ 국가별 구인인원 발굴 현황

-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총계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이 21.5%로 구인인원이 가장 많이 발굴됨.
- 미국이 19.4%, 캐나다 14.6%, UAE 6.6%, 호주 6.1%, 호주 6.1%, 중국 5.1%, 사우디 2.6%를 차지하며 기타 국가가 24.1%를 차지
- 최근에는 미국, 일본의 구인인원이 감소하고 캐나다의 구인인원이 증가



[그림 10] 국가별 해외 구인인원 발굴 현황(2003~2008)

〈표 12〉 국가별 해외 구인인원 발굴 현황(2003~2008)

(단위: 명)

구분	계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사우디	UAE	기타
계	14,773	2,890	3,406	809	719	2,261	391	1,050	3,247
2003	1,609	696	340	119	-		114	70	270
2004	2,663	1,087	1,106	147	15		6	61	241
2005	2,763	572	769	266	355	5	114	209	473
2006	1,529	97	411	83	47	38	10	306	537
2007	3,057	310	526	95	153	1,012	95	267	599
2008	3,152	128	254	99	149	1,206	52	137	1,127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각년도), 「해외취업통계」.

3. 우리나라 해외인력진출 정책의 문제점

● 해외취업 실적 미흡

- 과거 해외취업이 활발했던 시기나 현재 필요성에 비해 양적 및 질적으로 미흡
- 2008년 기준 산업인력공단을 통한 해외구직 희망자는 24,761명인데 반해 구인인원은 3,152명으로 구직인원 대비 12.7%수준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실제 취업자 수는 1,434명으로 구직 희망자의 5.8%에 그침.

● 적극적인 발굴 부족

-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해외 구인처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외업체의 구인요청 등에 주로 의존

● 해외 수요에 맞는 인력 부족

- 해외의 구인수요를 충족할 만한 인력(언어, 자격 등)이 부족
- 2008년 구인인원(3,152명) 대비 취업자(1,434명) 비율은 45.5%

- 해외취업 인력에 대한 교육 미비
 - 해외취업을 위한 연수를 추진하고는 있으나 연수 종료 후 연수내용과 일치하는 취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사후 관리 부재
 - 취업이나 인턴 기간 종료 후의 결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전담 기관의 한계 및 관련기관 간 협력 부족
 - 현재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전체 해외취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총괄 기관의 부재로 부처나 기관별로 해외취업지원이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업이 중복되고 현황 파악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부처, 지방단체, 민간단체의 해외취업 관련 정보 및 서비스가 통합되지 못함.

- 민간기업과의 연계 부족
 - 민간 기업과의 연계 및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해외인력 진출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현재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해외취업 관련 통계 및 정보시스템 구축 미비
 - 해외인력에 대한 통계 및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제공하는 기관이 없음.
 - 산업인력공단의 취업자 통계는 정부사업을 통하지 않은 해외인력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전체 해외취업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부나 관련 부처에서도 통합적인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함.
 - 해외취업 관련 정보제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못함.

IV. 해외인력진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적극적인 해외 구인처 발굴

- 수동적으로 외부에서 수요가 있을 때에만 알선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인처를 발굴해야 함.
 - 현재 해외취업지원 업무 총괄기관의 부재로 인해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인력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여전히 인력 수요가 높은 산업과 향후 미래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새로운 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함.
 - 정부주도로 추진하되 민간과의 연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각국대사관이나 해외주재원, 글로벌 기업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함.
 - ▶ 예를 들어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건설인력의 수요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직종에 있어서도 단순 기능직이 아닌 관리직 등 전문 인력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이러한 민간의 정보를 활용하면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임.
- 저숙련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구인처 발굴
 - 기존의 특정 산업과 저숙련 일자리에 집중됐던 방향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산업과 고학력 청년들이 진출하기 적합한 직종에 대한 해외 일자리를 발굴해야 함.

2.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해외 구인처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역량을 파악하고 적합한 인력 제공해야 함.
 - 구인처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적합한 역량을 갖춘 인재의 발굴 못지않게 양성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함.

- ▶▶ 현 해외취업 지원은 알선 수준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구인업체 및 구직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해외취업과 관련된 사전 및 사후 교육에 전반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함.

● 자격제도 정비 및 인력진출 관련 국가 간 협력

-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자격은 해외취업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바, 정부차원에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상호 자격을 인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격 상호 인증을 통해 인력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
 - ▶▶ 우리나라의 경우도 한일간 IT 기술자격의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통해 인력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

3. 해외취업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지원

● 다양한 해외취업 프로그램 제공

- 정부에서도 현재 “글로벌 청년리더 10만 명 양성” 정책을 통해 다양한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이와 같은 노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주요 선진국의 해외인력진출 지원 현황을 벤치마킹해 볼 필요가 있음.

4. 정책 총괄기관 선정 및 정보 인프라 구축

● 해외인력진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

- 현재와 같은 지원형태로는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취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음.
- 해외인력진출 정책의 규모 면에서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통계 및 해외취업 관련 정보 인프라 구축이 필요

- 현재 통계청, 노동부 등 관련 부처 어디에서도 전체 해외 취업자 관련 통계를 구할 수 없는 상황임.
 - ▶▶ 접근 가능한 통계는 해외취업자 현황은 산업인력공단을 통해 해외 구직 또는 구인을 하는 경우의 제한적인 현황만을 확인할 수 있음.
 - ▶▶ 법무부의 출입국 통계 역시 정확한 취업자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음.
-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해외취업자 수 통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 인력진출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기 쉽지 않음.
- 따라서 정책 총괄기관에서 해외인력진출 관련 통계 및 해외취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해야 함.

참고 | 주요 선진국의 해외인력진출 지원 현황

▣ 일본

- 공공부문에서 국제 협력의 일환으로서 개발도상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경우에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가 전문가 파견 사업의 총괄업무를 담당
- 민간 베이스로 기업 등이 경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사원을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에 송출을 담당하는 공식적인 기관은 없음.

▣ 미국

- 해외 진출과 관련해서 공공부문 진출을 담당하는 기관은 연방정부(대사관 직원), 국무성(단기간 해외취업 학생), 미국 정보국(U.S. Information Agency(유급 인턴십제도))이 있음.
 - 미국 연방 정부로부터의 장기간의 해외 파견으로서 5만 명을 넘는 미국인이 약 230개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근무하고 있음.
 - 단기간 해외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전용으로 1학기(반년) 혹은 3개월간의 국무성에 의한 파견 제도가 있음.
- 기관별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 미국국제개발청(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공중위생, 회계, 재무, 농업이나 국제관계의 분야에서 연간 130명의 학생 인턴십 운영
 - 국제 무역 기관(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등: 국제 경제, 무역 개발, 무역업무, 해외시장 정보 서비스 등에 있어 구인 모집
 -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CIA): 해외 주재 정보국 직원의 채용 실시
 - 세계은행(World Bank): 청년 전문가 프로그램(Young Professionals Program: YPP)을 통해 대학생에게 48개월간 해외에서 일할 기회 제공
 - 그 밖에 세계평화와 우정을 목표로 139개국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평화 부대(Peace Corps) 프로그램이 있음.

▣ 영국

- 공공부문에서는 국제개발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DfID)에서 해외봉사단을 운영
- 해외취업의 경우 영국 국민의 대부분은 국내외의 공적 및 민간의 모집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고용을 원하는 기관에 직접 신청
- 영국은 고용 대행업자로부터의 알선보다는 오히려 취업기관에 직접 고용되는 사례가 대다수

참고문헌

김남희 외(2007). 『고학력 여성 해외취업 지원사업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용성(2006). 『해외지원사업 심층평가』. 한국개발연구원.

채창균 외(2008). 『일자리 선진화 전략』. 한국직업능력개발원.

OECD(2006).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2006.

_____(2008). OECD Employment outlook 2008.
